

연 중 제 29 주 일

기 도 시 P. 459 C예

- 1독(출애 17, 8-13절)
- 2독(디 모 후 3, 13-4, 2절)
- 복음(루 가 18, 1-8절)

순정이

발행인	법	석	규
인쇄인	이	수	현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⑤5098)

□강론□



꾸 준 한 기 도

김 종 택 신부

현대의 영성(靈性)은 무엇인가 하고 한참 회색에 오르고 있다. 그리스도교의 영성도 마찬가지다. 그의 원천(源泉)은 무엇인가?

주 예수를 따르며, 그와 더불어 생활한 사람들에 있어서 영성이란 도대체 무엇이었던가? 스토브라그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예수님과 그의 만민이며 예수님께 향하여 인격적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인간성에 내포된 하느님의 위격에 자신을 바치는 것이다" 라고.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친교를 맺으면서 그는 별로 해간다. 교우는 주의 영을 받았음으로 같은 그 영으로 살아가는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친교를 맺음으로써 영의 사람이 되어간다. 그리스도교의 영성이란 이러한 영의 은혜에 끊임 없이 응답함으로써 성숙한 인간으로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주님과 만나고 친교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과 내면적 대화 즉 기도으로써 시작하며 기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고린토 후서 11장과 12장을 읽어 보라. 바오로 사도께서는 얼마나 자신의 일생을 허위를 버리고 진실한 생활방식을 취하셨으며, 이 생활을 위하여 항상 깨어 기도하셨는지를! 성 바오로는 신비로운 영성과 계시를 받았다. 이로 인해 "잔뜩 교만해질까 봐" 하느님께서서는 그분의 몸이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을 하나 주셨다(고린토 12). 바오로 사도는 "그 고생이 바오로에게서 떠나게 해주시기를 세번이나" 청했다. 그러나 주님은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번번히 말씀하셨다. 결국 들어주시지 않았다. 그 실의(失意)와 좌절(挫折)의 체험에서 바오로 사도는 다른 좋은 방향으로 전교히 이르렀다. 즉 "나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머무르도록 하려고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Ⅱ고린토 12, 9).

여기에 주님과 그의 내면적으로는 위격적(位格的) 만남이 내포되어 있으며 바오로 사도의 나날의 현실적 기도가 숨어있다. 바오로 사도는 매일 매일 현실적으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비결에 대하여 거듭거듭 기록했다.

"여러분은 또한 언제나 기도하며 하느님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에페소 6, 18. 참조... 필립 4, 6. 골로사이 4, 2)

예수께서는 "언제나 기도하고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 (루가 18, 1)고 가르쳤고, 밤을 새우며 기도 하셨으며,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며 기도함으로써 생활하셨음으로 그리스도교적 전통의 가장 옛 증언으로 전래한다.

공산주의와 독재의 횡포속에 시달리며 오늘을 살아가야 할 교황자백 여러분, 동경하는 주님의 나라가 어서 빨리 임하도록 꾸준한 기도를 드리라. 기도 없이는 진실한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주 북자성당 주임신부)



사도직 활동

(使徒職 活動)

전교의 말을 맞아 사도직 활동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자. 지금 이 순간에도 고아원에서, 양노원에서, 나환자촌에서, 병원에서 또는 전문적인 교리교육을 통해서 특수한 전교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애쓰는 분들이 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돕자. 그러기 위해서 전교회에도 가입하자. 그리고 우리도 나날의 일터에서 이렇게 일해 보자.

첫째,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에 앞서 그 형제들 벗으로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 그에게 관심을 갖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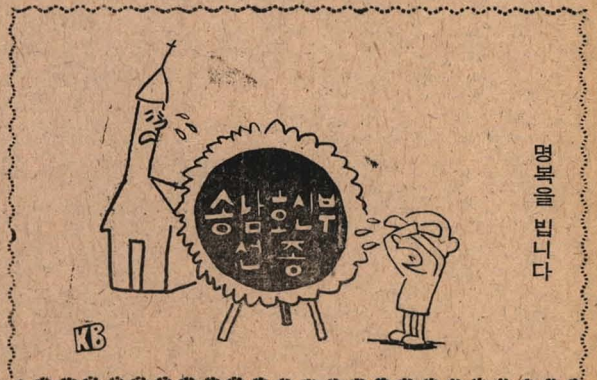
둘째, 그의 벗이 되어 주자. 복음을 다시 읽어 보라. "가장 보잘것없는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나(主)에게 해준 것"(마태오 25, 40) 이고, "벗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요한 15, 13). 이제 "우리는 말로나 혀끝으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하자"(요한 1서 3, 18).

우리는 주위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열심히 노력은 하나 위의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를 본다. 그러나, 복음전파에 앞서 따뜻한 인간적인 관계를 맺을 필요가 분명히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세째, 이제 그 벗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자. 우리는 크나큰 사명을 받고 파견된 사람들이다. - "당신들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십시오"(마르코 16, 15). 우리는 오늘도 이 미사를 통해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파견되며, "천주께 감사합니다"고 대답하지 않는가? 무엇을 천주께 감사한다는 말인가

네째,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활동하자. 이 모든 일을 나 혼자 힘으로만 해대기는 어렵다. 기도하자. 기도의 힘 없이는 주님을 볼 수도 없고 따르지도 못하고, 또한 쉽게 넘어져버리기 때문이다.

순정이 산책



명분을 밝힙니다

□ 성서 교실 ㉔ □



요한 2서

김 성 진

요한 서간은 초대 교회 시대부터 신자들이 특별한 감명을 가지고 읽어 왔다. 이 서간에서 열 두 제자중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요한은 신자들을 향하여 서로 사랑하라고 끊임없이 어버이다운 따스한 충고를 주고 있다.

저자는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단순히 장로(Presbyter)라고 소개한다. 당시 교회에서 장로는 연장자란 뜻과 함께 권위를 표시하였다. 장로는 당시 한 교회 안에 정주하여 그 교회의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대단히 존경을 받던 인물이었다. 초대 교회의 진수에 의하면 요한 사도는 연로(年老)하여 에페소에서 대단한 존경을 받았으니 신도들이 그를 장로라 불렀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서간은 요한 사도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면 최소한도 그 제자들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서간의 수신인은 「선발된 여주인」과 그의 자녀들이다. 요한 2서의 전체의 내용이 개인에게 준 편지라기 보다 한 교회와 그 신자들에게 준 글이다. 당시 사람들은 어느 도시나 또한 교회를 여성으로 나타냈던 것이다.

이 서간의 저자, 문체 및 정진성(正典性)을 두고 교부(敎父)들 간에 논쟁이 많았다. 382년 로마에서 열린 교회의(synodus)에서까지도 요한 사도의 작품이 아니고 무명 장로 요한의 작품이라고 했다. 5C에 이르러서야 이 서간은 요한 사도의 작품으로 확실히 인정됨과 아울러 신약정서(Canon)에 편입되었다 이 서간은 소아시아의 에페소에서 1C말엽이나 2C초엽에 쓰여진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 서간의 내용은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기를 권하고(4-6절) 예수께서 진정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부정하는 이단자들에게 속지 않도록 경계한다(7-11절). 여기서 말하는 이단이란 정신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고 보는 이원론적(二元論的)인 영지주의(Gnosticism)를 신봉하는 자를 말한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부인하였고 정신적 해방과 자유를 자랑하여 윤리적인 책임을 등한시하였다. 또한 이단을 가르치며 다니는 거짓 예언자(Propheta)들은 집안으로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이 서간이 의도하는 바는 신자들이 영지주의(Gnosis) 이단에 빠지지 않고 충실히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권고하려는 것이다.

□ 농민의 소리 □

1977년도 추곡수매에 대한 건 의 문

올해 벼농사도 작년에 이어 사상 유례없는 대풍작이 되리라는 소식이다. 풍년이 든다는 것은 소비자에게나 농민들에게나 기쁜 소식임에 틀림없으나 농민들의 모든 가뭄과 수해, 병충해를 극복하기 위한 피땀과 들인 비용이 제대로 보상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추곡 수매가 생산비를 보장함으로써 농민들에게나 농사지는 보람을 안겨주고 앞으로 정성껏 농사를 짓게하여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해소하고 외곡도입에 지拂되는 막대한 외화를 절약하여 식량자급 달성과 자립경제의 기틀을 마련하고 농촌과 도시간의 격심한 소득차를 해소하여 균형있는 사회발전과 국민적 대동단결을 기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따라서 올해 추곡 수매가격은 생산자인 농민들에게 생산비를 보장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기하고 정부에서 권장한 품종은 농민이 원하는 량을 전량 수매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며 수매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여 농가 자금난을 해소하고 앞으로 추곡수매가 결정에 농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국민적 단결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아래와 같이 우리의 의사를 건의한다.

* 건 의 사 항 *

1977년도 추곡의 쌀 80kg들이 한가마당 평균 생산비는 통일계통 쌀은 30,856원, 일반 계통쌀은 34,358원으로 추계 되었으며 80%의 쌀생산 농가에게 생산비를 보장하는 선은 통일계통쌀은 36,613원, 일반계통쌀은 40,394원으로 추계되었고(별지 산출근거참조)올해부터는 벼 수매에 있어서 수분함양 기준을 76년도의 15.5%에서 15%로 내림으로써 농민들이 추가로 포장해야 할 벼가 15만가마니(8백만십 수매시)이상이나 되고 건조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됨으로 이를 수매가에 반영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77년도 추곡수매에 있어서

1. 정부 수매가격은 통일계통쌀은 36,610원, 일반계통쌀은 40,390원 이상으로 인상 결정할 것
2. 정부에서 권장한 통일계통은 농민들이 원하는 전량을 수매할 것.
3. 수매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불할 것.
4. 정부는 수매가 결정에 농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국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

1977. 10. 1.

한국 가톨릭 농민회

교우 여러분의 성원속에 자라는 한국온수는 적은 자본으로 자립하고자 하는 분을 구합니다. 집안, 장수, 순찰, 고창, 남원지방 각가소 연락차 위와같이 대리점을 증설코져 하오니 야대로 시기 바랍니다.

한국 流 온수 온돌 공사

(본사 직영 호남 출장소)

이리시 인화동 2가 65-16(전화4940)

군산 연락소 전화 3032

한 등 암 (모이세)

설계·감리·허가수속 □ 하느님의 성전과 교형자매들의 보금자리 건축에 회소식!!!



신원건축연주소

1급 건축사

김 철 수 (금구<연>)

☆ 전주 가톨릭센터 220호실

전화 3-7780, <야간> 3-1449



한공렬 대주교 장학회 소개

본 교구 제4대 교구장(1961-72)이시던 故 한공렬 대주교님의 뜻을 선양하기 위하여 장학회가 지난 74년에 조직된 바 있다.

이 장학회는 신학생들을 돕는 장학회이다. 많은 분들이 이 장학회의 회원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본 교구장 김재덕 주교님의 뜻을 받들어, 이를 간단히 소개한다.

1. 장학회에서 드리는 인사 말씀

前 광주대교구 교구장이셨으며 대진신학대학 이사장이셨던 故 한공렬 대주교님께서 일생을 통해 가지셨던 사제양성에 관한 깊은 관심과 배려를 계승하기 위해 발족을 본 「한공렬 대주교 장학회」가 올해로서 설립 3주년을 맞았습니다.

故人께서는 일찌기 신학생으로서, 교수 신부로서, 그리고 신학대 학장으로서 반평생을 신학교에서 생활하시면서 신학교와는 깊은 인연을 맺고 계셨습니다. 불행히도 한대 주교님께서서는 1972년 3월 7일 많은 사업을 남기신채 주님의 품안에 선종하셨습니다.

74년 3월 7일 그 일주기를 맞아 우리는 故인과 유족의 뜻을 받들어 故인의 유산과 본 장학회 목적에 찬동하시는 분들의 독지금을 기금으로하여 대진신학 대학생으로서 가정이 빈곤하여 수학에 지장이 있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이들이 성소의 길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본 장학회를 설립, 그동안 작학년에 가정이 어려운 학생 2명씩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 2명씩에게 매학기 2만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본 장학회는 발족 3년이 되는 오늘날까지 아직도 큰 발전을 보지 못하고 담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음은 故인의 큰 뜻의 계승,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큰 짐을 맡고 있는 우리 후배들로서는 실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한대주교님의 3주기를 맞아 故인의 뜻을 널리 선양, 보다 많은 신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장학회로 육성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널리 회원을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강호 체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빕니다.

2. 회비

- ① 일반회원...한 학기(6개월) 5천원, 두 학기(1년) 1만원
- ② 특별회원...10만원이상 일시불

3. 특전

모든 회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수혜(受惠) 장학생들이 매월 1회이상 로사리오 기도 를 바치고, 1년에 2회씩 신학교에서 장엄미사를 봉헌함

4. 연락처

광주 우체국 사서함9호; 대진신학대학 내 한공렬 대주교 장학회

요심이 (220) 김병호



□아동복 전문□

까치의 집

이 윤례(메레사)
남중학교 정문옆
(남노파출소 ← → 동부시장)

□개원안내□

★ 언제나 찾아 주세요 ★ 수석(水石)치과의원

전주시 중앙동 3가 42-1
(박 소아과) 앞
원장 김 현(아오스딩)
전화 ③ 1669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주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 약국

—조제약 전문

김 을 태(베드로)
☎육교옆 중앙 시장쪽
(전화 ③ 4577)

□타자수리, 취업알선, 매월검정□

뉴-타자 학원

원장 신 승 무(바오로)
전화 ③ 6664

(전주 간호전문학교 앞)
전주시 남노송동 605-1

◎사진기계·사진재료 도산매◎

태 광 사

(구 태 양 사)
유 영 문(가이다노)
전주시 중앙동 3가 67
전주 우체국 후문 앞
☎ 2-6346

◇경운기·분무기·전자동 탈곡기 트랙터· 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열(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5116, 6114, 3547번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공
지
사
항

- 송 남호(요셉) 신부님, 향년 74세로 10일 오전 11시 자택에서 선종
감사합니다. 송 신부님 상장예절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친족대표·교구장재 위원회
1. 제 2차 마인드 콘트롤 (20일<목> 부터 4주간 매주 목·금·토, 회비 3만원)
 2. J.O.C 전주교구 연합회 정기총회(오늘 9시, 중앙성당 강당) 전회원과 선배투사 참석바람
 3. 제7호 교구 중고등 연합지「치명탐」 발간 원고 모집(10월 31일까지, 보낼곳...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 센타내 중·고등연합회 앞) 시, 수필 체험기, 입교동기 등의 원고바람
 4. 조국을 위한 월요 기도회 (17일 <월> 오후8시, 가톨릭센타)
 5. 농민을 위한 기도회 (18일 <화> 오후 6시, 안동에서)

(중앙) 전화 ③3651 주임 신부 서 울 복
보좌 신부 김 진 석
사도 회장 이 북 석

1. 성모회 월례회: 16일 공식 미사후, 유치원
2. 주일학교 체육대회: 오늘 오전 8시반부터, 해성학교
3. J.O.C 정기총회: 오늘 오전 9시부터 강당
4. 삼지회 세미나: 23일<일> 오후 2-5시 강당
5. 사무실에 빌려간 서적을 반납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106,020원

(노송동) 전화 ② 3702 주임 신부 공 아 영
보좌 신부 권 용 중
사도 회장 박 종 용

1. 사도회 임원 보선: 회장-박종용, 부회장-박춘근, 김성록, 소귀래, 선교부장-임재규, 전례부장-이대환, 봉사부장-김형호, 제경부장-유영철, 수고하시겠습니까 첫모임-내일 밤 8시, 사제관
 2. 성우회, 성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3. 신용조합 소식:
월례회 겸 조합원 교육, 영화상영(18일 밤 미사후)
제30차 국제 신협기념날 기념 총력 저축대회 (22일 오전 9시 반부터)
 4. 유아세례: 22일<토> 오후 2시
 5. 다음주일은 전교주일, 전교회에 가입 바람이며 다음주 헌금은 토마로 보내져 전교를 위해 사용됩니다
- 축 결혼! 임춘택(요양)군, 이현숙양 <23일 정오>
□ 지난주 봉헌금: 49,085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박 종 근
사도 회장 김 용 환

1. 미사시간 변경: 주일-오전6시, 9시(어린이 미사), 10시(공식미사) 저녁미사없음, <월-금> 오전 6시, <토> 오후 7시반-특전미사
 2. 직장인 예비자 교리: <토> 오후 8시
 3. 오늘 어린이 체육대회 부모님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53,030원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 종 택
사도 회장 조 성 호

1. 파티마 성모상 가정방문: 17일-이순옥, 18일-문선오, 19일-박인식, 20일-이봉춘, 21일-김용녀, 22일-김화영 23일-백금주
 2. 교무금 납입하여 교회운영 도움시다
 3. 오늘 주일학교 체육대회 많은 후원과 협조를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39,305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 현 택
사도 회장 박 장 춘

1. 부녀주일 월례회: 10시 미사후
2. 할머니, 어머니회 소풍: 21일<금>
3. 어머니회 미사 및 주회합: 매주<수> 오후 2시
4. 중고생 교리 및 성가연습: 매주<수> 오후 8시

□ 지난주 봉헌금: 41,030원 감사합니다

(술집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 대 권
사도 회장 전 종 근

1. 오늘 주일학교 체육대회, 많은 성원을 빕니다
2. 반상회에 가족이 모두 참석 바랍니다
3. 학생회 목상회: 30일 9시 출발, 치명자산
지참물-묵주, 기도서, 성가집
4. 부녀회 월례회: 매월 첫토요일 10시
5. 성가연습: 주일 저녁 미사후, 빠짐없이 참석합시다
6. 애령회 총회: 23일 공식 미사후

□ 지난주 봉헌금: 69,71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 환 철
사도 회장 김 윤 석

1. 꼬미시움 월례회: 오늘 오후 2시
2. 성지순례: 30일 오전 8시 출발, 차비2,500원(선착순 좌석번호), 미리내 김안드레아 신부경당(용인 자연농원 경유)
3. 어른 남녀교리: 매<금> 저녁 8시, 사무실
4. 새성당 건립 추진 상임 위원회: <화>밤 8시
신축현금 납부통지(동·반회장 분배), 조속한 시일 내 납부를.....
5. 제대화분 봉헌 감사합니다:
풍남화원 꽃집(구. 법원앞)

□ 지난주 봉헌금: 118,350원